

授業의 效果的 관리

李 龍 南

(全南大 教育學科)

1. 序 言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편할 날이 거의 없었다. '40년대의 이데올로기 투쟁, '50년대의 李承晚 정권 및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군사統治에 대한 민주화 진동기는 자연히 義氣 넘치는 대학생들을 필요로 했다. 더욱이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입시저옥을 탈출한 대학생들은 우선 저겨운 공부 또는 책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고 싶어했고, 그 시기에 독특한 낭만을 만끽하고자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학은 이러한 내·외적 요인으로 휴강이 잦았고, 그 결과 한 학기 16주 중에서 수업을 제대로 한 것은 평균 10주 정도에 불과했으며, 교재의 진도는 절반을 넘기가 어려웠다. 대학의 이러한 모습은 모든 교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진 외국에 유학하고 온 교수들에게는 착잡함을 갖게 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많이 변했다. 그 전에 비해 캠퍼스가 물라보게 조용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勉學雰圍氣가 높다. 이제 우리 대학도 그 본래 기능인 敎授·研究·社會奉仕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때에 이를 주도해 나갈 위치에 있는 인사는 다름 아닌 교수들이다. 이제는

그 것처럼 방관자적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대학의 분위기와 문제해결을 이끌어 갈 책무가 교수들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다음에서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위해 교수들이 주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특히 授業의 效果的 管理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길지 않은 외국 유학경험과 국내 교수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기초로 진술하려고 한다. 진개의 순서는 대체로 대학에서의 授業 過程에 따라 주요 문제점별로 기술해 보겠다.

2. 授業計劃書 및 休講

어떤 일이나 잘해 보려고 하면 계획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교수가 하는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그냥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人間 能力的 限界 때문에 잊혀지고 또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러한 계획을 文書化해 두는 일이 필요하다. 대학교수의 수업을 위해서도 계획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授業計劃書(syllabus)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우리 대학교수들의 경우 있는 것 같다. 우선 명칭의 문제가 있다.

많은 대학의 구성원들, 즉 교수·학생·직원들이 아직도 講義計劃書란 말을 즐겨 쓴다. 그러나 강의(lecture)란 엄격히 말하면 여러 가지 교수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대학의 수업이 다양한 教授方法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강의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강의계획서라고 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보면, 실험·관찰·토의 등 여러 가지 教授方法을 기술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명칭부터 '수업계획서'로 통일하여 바꾸어야겠다.

둘째, 수업계획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한 두 페이지에 걸쳐 教科書의 單元名 등 아주 간단한 사항만 기술해 놓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수업계획서를 작성해 두면 교수 자신이 수업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구속력도 갖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 및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가를 알게 해주므로 학습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업계획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너무 간단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별로 쓸모가 없다. 우리나라 교수들의 경우, 학기초에 배부하는 授業計劃書는 두 페이지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외국 교수들이 작성하는 수업계획서는 보통 20 내지 30 페이지가 넘는다. 그것도 학생들이 수강신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여 그것을 참고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친절한 안내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 수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여기에는 일정한 模型이나 形態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수에 따라, 그리고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수업계획서에는 학기나 학년 단위의 教科 授業計劃書와 주나 월 단위의 單元 授業計劃書로 나눌 수가 있다. 이는 따로 만들어 배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후자를 전자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각 수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던 <표 1>, <표 2>와 같다.

그런데 수업계획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의 하나로 休講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수업계

<표 1> 교과 수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의 개요

내용영역	제시될 수 있는 내용
교과번호	교양/전공, 필수/선택, 학분 계열, 수준 등의 분류코드
교과명	교과, 강좌의 이름
학점(시간)수	학점수, 수업시간수
개설시기	교과목의 개설 학년도와 학기
담당교수	각 담당교수의 소속, 지위 및 성명
수업시간	각 담당교수의 수업시간과 수업 시간
수강대상자	수강이 허용되는 대상자의 범위 및 신방방법
선수교과	수강에 앞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의 교과번호와 교과명
교과학습목표	교과목의 개괄적인 교수-학습목표와 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방법과 각 방법의 이용 정도
학습평가방법	학습평가의 형태, 횟수, 시기 및 성적산출 방법
주교제	주교제의 저자, 교제명, 출판사, 출판년도 및 구입처

<표 2> 단원 수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의 개요

내용영역	제시될 수 있는 내용
교과목의 개요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수 및 담당교수명
교과목의 수업진도	단원별 또는 주별 수업진도계획
교과목의 참고문헌	주교제 및 부교제를 포함한 참고문헌의 목록
각 단원별 학습목표	단원수업의 결과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학생의 능력
학습내용	단원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한 학습내용
수업방법	단원학습내용의 교수-학습에 이용될 수업의 방법
보충수업과제	수업전·후에 학생에게 부과되는 과제
참고문헌	단원학습내용과 관련된 참고문헌의 종류와 쪽수
학습평가	학습평가의 방법과 과제의 내용 및 성적 반영률

획서가 작성되었다 해도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휴강이 너무 잦았다. 學內外 문제

에 대한 集會와 開講 및 終講이 있는 주, 中間 및 期末試驗 기간, 新入生 및 卒業生 환영·환송식, 그 외에도 교수 및 학생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써 인하여 한 학기의 3/4 정도 수업하면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데 필자의 유학 경험에 의하면 휴강한 기억이 거의 없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외국의 교수도 가끔 휴강하는 경우가 있다 한다. 휴강과 관련하여 필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女教授 과목 시험시간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 감독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갑자기 일이 있어 남편인 자신이 감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男教授 한 사람이 휴강을 미리 통고하지 못했는데, 그의 부인이 수업시간에 노트를 들고 나타나 불러주고 적도록 한 다음 설명 및 질의 응답은 다음 시간에 남편과 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 휴강은 거의 안 한다. 학교당국에서도 규제하지만, 우선 교수들이 안 할 뿐 아니라 휴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장이나 총장에게 가서 불평한다. 따라서 휴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수업시간 동안 많은 양의 학습을 하게 된다. 필자의 스승 한 분이 언젠가 “우리나라 대학의 3~4년간 공부가 미국 대학의 1년 공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이 실감이 났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변했고 또 변하고 있다. 또한 변해야 한다.

3. 授業의 前段階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고려할 문제는 教授의 事前準備, 出席 確認, 授業目標 陳述, 事前學習 診斷 등이다. 먼저 교수의 사전준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르칠 정보를 수집하고, 강조점을 표시해 두며, 전체 내용을 구조화하고 내용과 관련된 예들을 준비하며, 동원될 교수매체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교수 방법, 학생들의 주의집중 방식, 학생들이 해야 할 과제나 활동에 대해서도 대비해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준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참신하고 깊이있는 知識 情報이다. 이것은 교수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바랜 노트와 내용이 부실하고 헛수도 오래된 교과서를 여전히 사용한다면 教授의 責務性(accountability)에 문제가 있다. 최근의 教育理論은 학생들의 學業成就에 교사도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부단히 자신의 수업내용을 새로운 정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갱신하여야 한다.

둘째, 출석 확인 문제가 있다. 교수의 授業管理에서 출석 점검도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어떤 교수들은 매시간 출석을 부르는 반면, 어떤 교수들은 전혀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美國 교수들은 학기초 몇 시간 외에 출석을 부르는 경우를 좀처럼 못봤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授業內容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출석 확인은 우선 교수와 학생의 人間關係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한 학기를 가르치고도 학생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것은 非人間 敎育의 출발이다. 또한 출석 확인은 그 학생의 학문에 대한 성실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학문에서 우리는 結果의 重要性만큼 過程의 重要性도 강조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출석 확인이 매시간 학생을 구속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대단위 수업의 경우 한 번 출석 점검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 가며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은 간헐적으로 출석을 부르는 것이 여러 면으로 보아 적당한 것 같다.

셋째, 수업 초에 授業目標을 진술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사실 수업목표를 진술하는 교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教育學者들은 '50년대부터 수업목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分類, 陳述 水準 및 方法에 대해 연구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수업목표는 그 시간에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수업시작 초기에 진술해야 한다. 수업 초에 이를 진술해 두면 이는 先行組織子(advance organizer)의 역할을 하여, 학생들은 이를 중심으로 전체 수업을 이해하고 구조화하기 때문에, 이해 정도가 높고 성취 정도 또

한 높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는 교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꼭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한편, 수업목표는 가르치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획득되기를 원하는 추상적·구체적 행동과 함께 진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삼각함수의 원리(내용)를 열거하기(행동)와 같다.

마지막으로 수업 전 단계에서 고려해 볼 사항은 前學習의 診斷 문제이다. 사전학습(previous learning)이란 이 시간 수업과 관련되어 이미 알았어야 할 전 시간까지의 학습내용을 말한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있었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 시간 수업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새로운 내용으로 나아가면, 학습 결손이 누적된다. 이는 특히 位階性(hierarchy)이 강한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는 교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4. 授業의 中段階

수업의 본론 부분에서는 그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이해시키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주로 敎授方法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문제는 우리 교수들의 準備 상태, 그리고 대표적 교수법인 講義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최근에 教育理論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방법, 그리고 교수 입장에서 그것들의 획득 절차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대학교수들은 대체로 교수가 되는데 자기 학문영역 외에 특별히 훈련을 받지 않는다. 해당 전공분야에서 博士學位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특별히 교수에게 요구되는 大學教育에 대한 全般的 理解, 教育方法, 그리고 大學生과의 人間關係에 대해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채용되면 바로 교수가 된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로서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서서히 알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前에 대학교육의 여러 측면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대학에서 敎職科를 이수한 사람은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으나 채용시 이것이 고려되지도 않고, 대부분 교직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수가 된다. 그런데 美國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장차 교수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대학원 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새로 채용한 新任敎授를 위해 초기에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우리 교수들의 주요 교수방법인 講義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교수들은 강의법에 대해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 교육을 받아왔고, 또 수많은 교사 및 교수들의 방법을 관찰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의를 잘 할 수 있다. 물론 강의법은 教育方法의 歷史上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그러나 강의법은 학생을 교수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어 수동적으로 되게 하고 動機化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참여학습이 일어나지 못하며 長期記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교차원의 思考力을 기르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한 교수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注意集中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 수업에서 강의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新·舊의 여러 가지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해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講義法의 대안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전통적인 교수방법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討議法이다. 그 외에도 계속적인 교수의 질의에 대한 학생의 응답을 통해 어떤 내용을 탐구해 가는 問答法,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個人敎授도 있으므로 학생 집단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골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새로운 敎授模型이나 工學的方法들이 대학 수업의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다. 먼저 교수모형으로 제안되는 것은 Taba의 귀납적 사고모형, Suchman의 탐구훈련모형, Schwab의 과학적 탐구모형, Oliver의 법리학모형, Boocock의 사회적 모의화모형, 그리고 Massialas의 사회과 탐구모형 등을 들 수

있다. 工學的方法으로는 기존의 여러 가지 視聽覺 媒體를 이용하는 것 외에 授業의 體制化, 수업 텔레비전(ITV), 컴퓨터 보조 수업(CAI), 相互作用 비디오체제, Keller Plan 또는 個別化 授業體制(PSI), 錄音 교수체제 또는 自動 교수체제(AT), 팀 교수제 등이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여 대학 수업을 개선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교수들이 새로운 教授方法을 획득하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학 차원에서 신입 및 현직 교수에게 大學教育에 관한 教育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없는 것 같다. 다만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전국 대학으로부터 약 150명 정도를 추천받아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교수가 새로 채용되고 있고, 또 현직 교수들에게도 새로운 教授行動 變化技法을 보급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예산의 뒷받침하에 확대하거나 각 대학별로 歐美 여러 대학에서 하듯이 文書式 資料(protocol materials), 마이크로 티칭(micro-teaching), 미니 코스(mini-course) 또는 教授의 센터를 만들어 두고 이의 점진적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授業의 後段階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요 내용의 검토와 함께 評價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또한 授業 내의 구조화와 함께 授業間 구조화에도 힘써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評價와 관계가 있다. 形成評價 문제, 교수의 評價 問項 작성기법, 교수의 授業에 대한 評價, 그리고 試驗 및 課題物 처리가 주로 문제이다.

먼저 대학 수업에서 형성평가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평가라 하면 紙筆檢査를 연상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지필검사를 간단히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매시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형성평가는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점

차이므로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이러한 形成評價는 後行組織子의 역할을 하는데 주요개념을 복습하여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둘째, 교수들의 問項 作成 기법을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실 교수가 되기 위해 수많은 시험을 보아 왔는데도 막상 자신들이 문항을 출제할 때는 많은 교수들이 그리 능숙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에서 客觀式 問項을 출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가령 객관식 문항을 출제 하더라도 문항작성 원리에 맞지 않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관식으로 출제한 경우도 아직도 “~에 대해 아는 바를 쓰시오.” 또는 “고조에 대해 논하시오.” 따위의 문항이 가끔 발견된다. 그런데 필자의 유학 경험에 의하면 博士 과정에서도 객관식 시험이 잦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심지어 博士 入學 資格試驗(qualifying examination)이라 할 수 있는 것도 객관식으로 치러 보았다. 문제는 객관식이건 주관식이건 문항의 출제기법이 중요한 것 같다. 따라서 학생들의 능력 및 학습 정도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세미나 등을 마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거나 교수 자신이 教育評價 書籍을 읽고 기법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문제이다. 평가라 하면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하는 평가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教育評價의 본래 목적이 학생들의 성적 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授業을 얼마나 잘 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다면 교수의 여러 가지 教授行動에 대해 학생들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美國뿐 아니라 가까운 日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교수는 이를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feed back) 자료로 이용하고, 학교당국은 이를 보고 그 교수의 수업 능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後者の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잘만 이용하면 교수의 授業能力 開發에 쓰여질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평가를 달가와 하지 않는 것 같다. 우

리나라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아직 한 두 대학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도화되지 않더라도 교수 자신이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 문항을 만들어 실시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試驗 및 과제물 처리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우리 교수들은 시험 결과나 과제물을 처리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학생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관심이 학습에 있다면 반드시 평가 결과를 되돌려 주고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과제물에 대해서는 몇 마디 평을 적어 되돌려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남의 과제물을 베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대학교육을 통해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과정의 誠實性과 知的良心性을 도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전체적 성적 평가의 결과도 이름을 가리는 등의 방법을 쓰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성취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結 語

지금까지 필자는 대학에서의 授業의 效果的 管理方案에 대해 수업의 과정에 따라 授業計劃 書 및 休講, 出席 確認 등 수업의 초기단계에서 고려할 내용, 教授方法, 그리고 教育評價 문제

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교수들이 잘 준비되면 될수록 우리의 대학들은 더 나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고 더욱 내실화를 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國際化를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교수 및 학생을 선진 외국 대학에 파견하여 여러 가지 것을 체득해 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대학의 국제화가 되려면 이제 도움을 받기만 하기보다는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교수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대학들이 內實化를 기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대학의 내실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教育課程 운영, 學生의 質 및 그들에 대한 서비스, 施設 및 設備, 行政 및 財政 상태 등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평가해 보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다름 아닌 教授의 研究 및 授業의 質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교수 개인의 노력에도 의존하지만, 대학 전체적으로도 이를 배려할 준비가 되고 실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진정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대학의 국제화를 기하게 된다. 이제 우리 대학들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풍토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때이다. 이는 바로 교수들의 손에 달려 있다. ▣